

중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呂濟民*

중국에서 비교적 늦게 출현한 박물관은 단지 1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간동안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기에 완만한 발전을 하였다. 1949년에 이르러 중국에는 21개의 박물관만이 있었으며 이 또한 몇 개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은 박물관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근 반 세기 이래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행한 20여 년 이래 중국의 박물관사업은 눈에 띄게 놀랄만한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1. 근래에 들어 일단의 현대화된 대형의 사회역사와 예술박물관이 새로이 건립되었다. 예를 들면 심서역사박물관, 상해박물관과 하남박물관 등이다. 또한 성과 시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박물관을 건설하도록 비준하였다. 이러한 박물관은 중국의 중점적 발전항목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유구한 역사문화와 풍부한 문물고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중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중화민족의 혁명전통을 반영하는 기념성 박물관으로는 중국혁명박물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중국아편전쟁박물관, 중국갑오해전박물관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등이 있다. 이러한 박물관은 근 40년 래 지속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인민들이 국가 독립과 민족해방의 영웅적인 투쟁을 현실감있게 전시하고 있다.
3. 예전에 숫적으로 많지 않았던 자연, 지질광산류의 박물관이 대규모로 개보수되었다. 북경, 천진, 상해, 절강 등 자연박물관과 중국지질박물관, 중국 무연탄박물관 등이 있다. 이들의 진열 전시도 대폭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크게 확장을 진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현대화된 박물관으로 성립되었다.
4. 예전의 적은 숫자이던 과학기술류 박물관은 근 20년 래 신속한 발전을 하였으며 이미 하나의 박물관 종류로 형성되었다. 중국과학기술관을 필두로 하여 기본적으로 성과 시 지구에 분포하고 있다.
5. 근래에 대단히 많이 출현한 직업박물관은 선명하게 전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농업박물관, 체육박물관, 우표박물관, 화폐박물관, 인쇄박물관, 실크박물관과 차(茶)박물관 등이다.
6. 민족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기초 위에서 신속한 발전을 하였는데 중국 다민족의 통일 단결의 상징을 나타낸 것이다. 새로 건립된 대형의 현대화된 서장박물관 및 신강, 운남, 귀주 등지의 민족박물관은 모두 현란하고 다채로운 민족의 특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7. 환경과 생태계의 균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 몇 년 래에 귀주 등지에 생태박물관과 종합박물관이 나타났다. 이것은 생태 문명 세기의 새로운 하나의 부류를 맞이하는 것이다.
8. 시장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탐색적 성격으로 숫적으로 많지 않은 사립박물관이 건립되었다.

* 중국박물관학회 이사장
번역: 오일환 (경희대박물관 연구원)

북경시 인민정부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7개의 개인박물관에 대하여 건립을 허가하였다.

중국에는 현재 2,000여 개의 박물관이 있다. 그 중에 국가문물국 관할에 예속된 박물관은 1,331개(1998년)로 전체 2/3를 점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사회역사박물관, 예술박물관과 혁명박물관이다. 아래에 열거되는 숫자에서 발전과정을 볼 수 있다. 1949년 21개, 1957년 72개, 1980년 365개, 1985년 711개, 1990년 1,013개, 1994년 1,161개, 1998년 1,331개이다. 1950년부터 1980년의 30년 사이에 344개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년 평균 11개가 증가한 것이다. 1981년부터 1998년의 18년 사이에는 966개가 증가하여 매년 평균 53개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문물국 계통의 박물관이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 18년 내에 발전한 것이다. 기타 계통의 박물관 증가 속도도 대체로 이와 같다.

중국박물관은 수량의 증가와 함께 박물관의 종류 또한 나날이 풍부해져서 이미 일정 규모로 비교적 완전한 박물관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행정은 4급으로 나뉘고 있다. 국가급, 성(직할시·자치구)급, 지구(시)급과 현(시)급이다. 그 인원, 경비 등은 급에 따라 안배가 되고 있다. 소장품 내용과 업무 범위는 대체로 6종류의 형태가 있다. 사회역사류, 자연과학류, 문화예술류, 혁명기념류, 전문직업류, 생태환경류이다.

중국박물관의 소장품은 예전에 주로 문물과 표본을 지칭하였으며 귀중한 모형과 귀중한 복제품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이나 유적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유적지 종류는 문물보호단위로 된다. 우리들은 박물관 소장품이 업무활동의 물질적 기초이면서 전시와 소식을 전달하는 주요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전국박물관의 소장품은 1,500만 건이며 그 중 국가문물국 계통의 박물관 소장품이 약 1,000만 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소장품이 가장 많은 북경 고궁박물관은 105만 건, 남경박물관 39만 건, 중국역사박물관 31만 건, 안휘성박물관 23만 건, 산둥성박물관 21만 건이다. 소장품이 12만 건 이상인 박물관은 사천성박물관, 하북성박물관, 상해박물관, 하남박물관, 섬서역사박물관, 호남성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 등이다. 그리고 대다수 성(시)급 박물관의 소장품은 모두 10만 건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중국박물관의 소장품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1급은 진귀문물, 2급은 귀중문물, 3급은 보통문물이다. 근년 래 중국박물관 소장품의 개념은 부단히 확대되었다. 역사적, 과거적인 전통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현대적인 것에 대하여도 비교적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수장한다는 개념이 나타났다. 작년 어떤 박물관에서는 주동적으로 홍수를 극복하고 재난을 구한 증거물을 수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수장의 새로운 관념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박물관은 수장뿐 아니라 사용도 중시하고 가능한 소장품의 사용률을 향상시키며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우리들은 잘된 진열전시가 소장품의 사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며 박물관 공작의 질량을 가하는 중요한 표지임을 잘 알고 있다. 근 몇 년 래 중국박물관의 진열전시가 이제야 나아졌으며 형식과 수단 역시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체적 수준 역시 비교적 향상되었다. 대다수 박물관의 기본진열도 더욱 새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사상에서 진열품 조합에 이르기까지, 전시수단에서 형식 풍격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교적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었다. 1997년부터 국가문물국, 중국박물관학회와 「중국문물보」가 연합하여 '전국10대 진열전시 명품전'을 개최하여 서로 비교 표창활동을 전개하였다. 1999년 4월 호남 장사에서 '98년도 10대 진열전시 명품표창 학술연토회'를 개최하여 박물관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얻었다. 박물관은 기본적 진열을 잘해야 하는 동시에 임시 전시도 잘하여 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근년 래 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문물국 계통의 1,331개 박물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진열전시가 5,600여 개에 달하고 관람객은 1억2천여만 명으로 그 중 외국인이 600여만명이다.

박물관 3대 직능 중의 하나가 과학적인 연구인데 이제서야 진일보한 영역으로 개척되어 하나의 학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박물관관리조례」의 규정에는 '박물관은 현지 전시관의 선결과 임무로부터 출발하며, 소장품을 기초로 하여, 각 항의 업무공작의 질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물관학과 유관 전공학과 및 응용기술의 연구를 전개한다.' 이들 각 항의 업무활동인 수장, 보관, 진열과 교육이 모두 과학적 연구를 받아들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매우 양호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러한 성과는 현지 진열관의 업무 공작이 집중적으로 보여진 것이며 또한 사회활동 속에서 나타나며 각종 학술보고, 논문 및 저술 등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보여진다. 1982년 중국박물관학회 성립 후 각성, 직할시와 자치구 등에서 계속하여 박물관학회가 성립되었고 각종 학술연토회를 거행하였으며 학술논문집을 출판하였다. 또한 각종 신문·잡지와 대량의 학술연구 논문과 경험을 총결집시켜 발표되어 박물관학 연구의 광범위한 무대가 형성되었다. 중국박물관학회 출판의 「중국박물관」과 「중국박물관통신」, 북경의 「북경문박」, 길림의 「박물관연구」, 섬서의 「문박」등은 사회적으로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1993년 출판된 「중국대백과사전-문물 박물관」이후 계속하여 「중국박물관지」, 「중국박물관학개론」, 「當代的 박물관사업」(이상 呂濟民 주편) 및 「중국박물관학기초」, 「중국기념관개론」 등의 저서는 박물관학 연구의 풍부한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국박물관 사업의 관리체제는 국무원이 확정된 직책 업무에 따라 나뉘고 국가문물국은 전국 문물박물관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박물관 관리의 법규와 발전계획을 책임지며 전국박물관에 대한 폭넓은 업무 지도와 감독관리를 하고 있다. 중앙의 각 부위는 해당부문의 박물관 공작을 책임관리하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문물국은 해당지구 문물박물관 사업의 주관부문으로 지방성 관리법규와 발전계획을 책임담당하고 해당지구 박물관에 대하여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군사계통의 박물관 공작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책임관리에 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다계통, 다직업, 다원화된 영도적 관리체제로 이미 수 십년간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문물부문의 사회역사와 예술류에 예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타 부문과 다른 부류의 박물관은 극히 적었으나 이러한 체제 역시 상당한 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박물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전면 개혁되는 신시기에 처하였지만 박물관의 관리체제는 개혁되지 않았다. 또한 박물관 사업이 총체적 발전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절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중국박물관이 당면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박물관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폭넓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 박물관 관리학과 설립을 더욱 긴밀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과 건설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국제무대에 비하면 한참이나 늦다. 따라서 이러한 학과의 이론 연구를 더욱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폭 넓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국가 혹은 지구박물관 사업의 발전 계획과 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나 미시적으로는 박물관의 내부직능, 조직기구, 인원배치, 관리제도와 관리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의 연구는 중국박물관 행정관리와 업무관리 및 그 규율의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관리체제, 운영방식과 관리방법을 연구하여 박물관 관리의 과학화, 현대화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매우 과학적인 조작규정을 점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2. 전국박물관의 현대적 관리체제를 세워야 한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국가문물국이 전국박물관을 관리하는 기구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분명하지도 않고 명확한 관리체제도 없다. 현재 박물관 발전의 실재수요에서 출발하여 전국박물관이 현대적 관리체제로 건립되고 있으며 전국 박물관 기관의 직책과 권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아울러 그와 지방

정부와 기타 계통의 업무를 나누는 규정으로 전국박물관의 폭넓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3. 전국박물관의 총체적 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예전에 전국박물관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폐해만 많아지고 이익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들은 발전되고 중국특색의 박물관체제와 총체적 박물관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완전한 체제와 풍부하고 다채로움에 이르기 위한 요구는 박물관 종류가 완벽하게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며 지역적 안배에도 합리적으로 완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총체적 박물관 사업은 단지 대도시의 대단위 박물관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류, 각종 규모와 각종 직업박물관의 전면적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소수민족지구박물관의 신속한 발전을 요하거나 서부지구박물관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직업 특성의 주제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제창하여야 할 것이다.

4. 박물관의 법제제정과 의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문물국이 제정 반포한 「성시자치구 박물관 공작조례」, 「혁명기념관공작시행조례」, 「박물관 안전공작규정」, 「박물관 소장품 관리방법」과 「문물소장품 등급표준」 등은 전국박물관 공작에 대하여 모두 지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박물관 사업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법규는 이미 현실 공작의 수요에는 적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한계성 역시 나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리법규의 개정과 제정이 긴급히 상정되어야 한다. 시급하게 닦친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박물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박물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실시를 촉진하여 전국박물관의 법규관리를 완전하게 건립하고 전국박물관사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